“창종 50주년 맞아 재도약 박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간담회서

“창종 반세기를 맞아 밀교 홍포와 재도약의 중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불교총지종 제19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사진>는 3월 20일 서울 역삼동 불교총지종 통리원에서 재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선 정사는 “올해는 창종 48년으로 창종 50년을 2년 앞두고 있다. 이에 내년 초에 총지종 50년사 발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승단과 신도가 함께 손잡고 선대 스승님들의 창종 정신과 반세기 종단 역사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인선 정사는 “종단사 발간을 통한 회고와 성찰은 급속히 변화해 가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 가치를 불교적 사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데 큰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종 50년사 발간 추진
수계제도 4단계로 늘려
강원 · 제주에 불사 계획
국제 불자대회 유치도

재가불교 비전 수립

총지종은 우선 제19대 집행부 종책과제를 △창종 50주년 기념 책 발간 및 출판기념회 △종헌 종법 개정 △신규 교화지 개척 및 사원 재정비 △승직자 심화교육 강화 등으로 정했다.

이 중 종헌종법 개정에 대해 인선 정사는 “지난 18대 집행부 시절부터 통리원장 산하에 종헌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종단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시대 상황과 상충되는 조항들을 개정하려 작업 중에 있다”며 “이 일은 종단 입법 기구인 종회의원들의 검토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10월 종회에는 새로운 개정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계획을 피력했다.

이어 인선 정사는 △정각사 득락전 헌공 불사 △법성사 헌공 불사 △제10회 국제 재가불자 대회 △제13회 경로잔치 △총지종 교도 수계법회 △제30회 청소년 어린이 법회(바른 인성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강화 등의 핵심 사업도 발표했다.

이 자리서 인선 정사는 새롭게 진행되는 불사에 불상 점안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다만 우리 종단은 밀교 본연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사 추진이 목표다. 5월말에 완공 예정인 부산 대표 사찰 정각사가 그 좋은 예이다. 본당 2층에 건립된 득락전에는 총지종 사원 중 유일하게 불상을 모셔 전통성을 강조했다”며 “추후 기도 도량을 조성한다면 조계종 불상과 다른 밀교 양식의 비로자나불을 조성하는 등 특색을 갖춘 불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총지종은 사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도 헌공 불사를 해 전국 주요 도시에 포교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에 10회째를 맞는 국제 재가불자 대회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인선 정사는 “이 행사는 총지종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란 취지로 재가불교 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1회 대회서 5회째까지는 우리나라서, 그 이후는 스페인,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을 거쳐 2020년 제10회 대회는 다시 우리나라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승직자 처우 개선 노력

총지종은 수계 제도도 대폭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줄곧 1회로 그치던 수계 행사를 올해부터는 4단계로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총지종은 7년 이상 신도에게만 수계를 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수계 대법회부터는 개선된 4단계에 따라 종도들의 가사 등을 구분해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등 가사만 봐도 수행과 신행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총지종은 2017년까지 진행한 통일음악회제를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부산 정각사와 단위사찰서 종도들의 화합을 위한 문화 행사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인선 정사는 “종단 수익 사업을 강화시켜 현재 100명 정도 유지되는 승직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기본교육기관 조정, 대승적 합의를”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불사 10년 성과와 과제 (하)

출가자 120명 선으로 급감
교육원 다양한 사업 추진
성과 無… 정책 전환 필요
기본교육기관 조정도 난항

출가절벽 도래, 이후 대책을
‘일당백’ 출가자 양성 절실
종단 차원 TF 구성 등 고민
연속성 있는 정책도 요구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의 지난 10년간의 승가교육 개혁불사는 기본교육부터 재교육, 전문교육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한계를 내비친 부분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출가 부분이다. 조계종 한 해 출가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조계종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532명이었던 출가자 수는 20년이 지난 2018년 122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57명이 출가하며 한 해 출가자 200명 선이 무너졌고, 2년 만에 150명 선도 붕괴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계종 교육원도 ‘출가 진흥 원년의 해(2016)’를 선포하며 각종 제도 정비 · 장려 · 홍보사업들을 펼쳐왔다. 실제 청년출가학교, 산사청춘캠프들은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종책들은 가시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조계종 교육원은 “출가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출가상담을 하고 있으며, 출가상담전화 개설 · 출가지도법사 제도 운영 등 출가 인식을 확장해 출가문화를 보편적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원은 교구 출가지도법사 지원과 출가상담실 운영 등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 스님들의 출가 진흥 독려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출가자 감소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교육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종책을 고민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그간 전문가들이 종단 차원의 T/F 구성들을 요구해왔고, 앞선 총무원장 스님들 역시 주요사업계획으로 ‘출가 T/F’ 구성을 내놨지만 정작 임기 내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출가는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계종단의 향후 존립에 대한 사안이지만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 종단적 T/F정도는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에 맞는 유연한 출가제도도 필요하다”며 “동남아시아 불교의 경우처럼 단기출가를 통해 수행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가자 감소로 인한 ‘출가 절벽 시대’의 도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들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기본교육기관 조정’이다. 이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조계종 교육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교육기관 14개 사찰승가대학 중 종법이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정원 10인을 충족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총 학인 정원 40인을 채운 교육기관은 4곳이었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학년별 입학정원인 120명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각급 교육기관과 이를 운영하는 교구본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관계자는 “학인 수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의 교육기관 조정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지만 각 교육기관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의견이 상이하다”며 “의견을 좁혀갈 수 있는 논의를 하려 한다. 이를 통해 로드맵 작성까지는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들 필요성은 알지만 당장은 부담되는 측면이 많다”면서 “그래도 이제는 정말 대승적 토론 등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성 있는 승가교육 불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봉행되는 ‘교육불사 후원법회’도 이 같은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진광 스님은 “이제 승가교육의 큰 줄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승가교육은 연속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집행부 불신임, ‘제2분규’ 우려

원로회의,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

편백운 스님 “원천무효, 사회법 제소”



태고종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을 결의하는 모습.

태고종 중앙종회가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하고, 원로회의가 이를 인준했지만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원천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측 스님들의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벌어져 2015년 폭력사태에 이은 제2분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덕화)는 3월 2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가 요청한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안을 찬성 12표 · 반대 5표 ·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회의는 23명 중 18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인준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다. 태고종 종법에 따르면 원로회의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 인준이 가능하다.

약 1시간여 진행된 회의는 시작 전부터 아수라장이었다. 편백운 스님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문건을 원로 스님들에게 배포하려 했고, 반대 측은 이를 저지했다. 원로 스님들을 흔들지 말라는 게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 스님들은 고성과 욕설이 주고받았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 진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며 원로 스님들도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태고종 중앙종회의 불신임과 원로회의 인준으로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 사상 첫 불신임된 총무원장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편백운 스님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불신임 관련 모든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원로회의에서도 편백운 스님은 “인준하면 분연히 일어나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태고종 사태는 제2라운드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편백운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회 결의 자체가 법적 하자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로회의 결정 또한 원천 무효다.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거취를 결정할 수 없으며, 총무원장으로서 종무를 수행할 것을 천명한다. 제26대 집행부를 그대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또한 “종단이나 종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편견에 사로잡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일부 종도들은 법적 대응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사회법 제소를 시사했다.

한편,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이날 태고종의 현 상황에 대해 참회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안 회의 앞에 서 있는 것에 먼저 국민과 모든 불자들에게 깊은 용서를 구하고 사과드린다”며 “태고종의 모든 종도들도 깊은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종단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